



## 實名(姓名)상표시대 오다

실명 상표는 강한 식별력에 의해서 출원인은 상표 등록이 쉽고, 소비자에게는 뛰어난 품질 보증성을 인증해 줄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의 실명화 시대가 예견된다.

최근 자신의 이름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성공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이 '90~'98년간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상표 출원에 대한 최고 등록률이 65%(평균 등록률 59%)인데 대하여 실명상표의 최고 등록률이 81%(평균 등록률 73%)로 나타나고 있어 실명상표의 등록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같이 실명상표의 등록성공률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는 기능뿐 아니라 자신의 것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주요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출원은 강한 식별성에 의해 등록이 비교적 쉽고, 아울러 소비자는 상표의 실명화에 따라 품질보증성이 인증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명상표로 출원·등록된 예로서는 의류업등 패션업계에 널리 알려진 「ANDRE KIM, 앙드레 쉰」, 「이경숙 BOUTIQUE」 상표가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고, 한국의 세계적인 골프스타 박세리는 「세리 박, SERI PAK」을 '98년 9월 10일 상표 및 서비스표분야 42개류 전류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나 비법(秘法)등이 필요한 음식점, 미용실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요리경연대회 우승자 송광호 철판요리집」, 「원조 박소현할매집곰탕」, 「박준 미용타운」, 「이가자 미용실」 등의 실명상호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상표의 실명화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표의 실명화 현상은 기업의 자기 얼굴 알리기를 위한 경영전략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분석한 보고서 "기업 CEO의 가치

와 브랜드화"에 의하면 미국투자자의 77%가 회사의 이름보다 최고경영자(CEO:CHIEF EXECUTIVE OFFICER)의 이름을 보고 투자대상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홍련왕 이승업펀드」를 운용하는등 유명한 스포츠맨의 실명을 이용하여 마케팅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때 實名商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등 선진각국은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될 것에 대비해 각 기업은 「도메인 네임」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기업도 경영전략차원에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 주요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하여 실명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출원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90~'98년간 상표출원 등록현황

년도	출원건수	등록건수	등사용
1990	46791	30316	64.79024
1991	46558	30715	65.97148
1992	45032	29692	65.71327
1993	59500	36614	61.53613
1994	72495	43878	60.52555
1995	71706	45027	62.79391
1996	84916	50804	59.82854
1997	86638	49515	57.01997
1998	54450	19899	36.545
평균	63142	37384	59.206

실명상표 출원·등록현황

년도	출원건수	등록건수	등사용
1990	599	455	75.95993
1991	809	662	81.82942
1992	718	553	77.0195
1993	751	547	72.83622
1994	1040	778	74.80769
1995	1043	790	75.74305
1996	756	530	70.10582
1997	877	605	68.98518
1998	504	270	53.571
평균	788	576	73.096



발명특허뉴스 **특허·등록 동향**

# NEWS

## 전기통신·기계분야 산업재산권에서 높은 비중 차지

'99년 상반기 신규설정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산업부문별 등록동향을 살펴 보면, 전기통신 분야와 기계분야가 다른 산업분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9년 상반기 신규설정등록된 산업재산권중 기술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동향을 보면, 특허·실용신안은 50,267건이 등록되어 산업재산권 총등록건수 76,680건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

기대비 78%의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10대 산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 Life-cycle이 비교적 짧은 첨단산업 분야인 전기통신분야는 22,441건으로 특허·실용신안 전체 등록건수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계분야는 14,118건으로 28.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2개 산업분야의 점유율은 72.7%로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상반기 산업부문별 등록현황(특허·실용신안) (건, %)

구분	기계	화학	섬유	전기통신	토목건설	채광금속	음료위생	사무용품인쇄	농림수산	잡화	합계
등록건수	14,118	4,221	1,411	22,441	2,148	1,325	1,675	571	615	1,741	50,267
점유율	28.1	8.4	2.8	44.6	4.3	2.6	3.4	1.1	1.2	3.5	100.0
증가율	96.4	50.0	66.4	75.2	78.9	92.5	45.0	70.4	83.6	99.9	78.0

\* 99년 상반기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총등록건수:76,680건

○그리고 국내 10대 다등록업체의 산업부문별 등록현황(특허·실용신안)을 보면, 국내 10대 다등록업체의 점유율은 내국인 총등록건수 대비 62.1%를 차지하고 있

으며, 내국인 총등록건수 대비 다등록업체의 점유율은 삼성전자 17.4%, 현대자동차 11.4%, 대우전자 9.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10대 다등록업체 산업부문별 등록현황(특허·실용)

(통계기준:99년 상반기) (단위:건, %)

순위	업체명	기계	화학	섬유	전기통신	토목건설	채광금속	음료위생	사무용품인쇄	농림수산	잡화	계	점유율1)
1	삼성전자	1,202	30	254	5,098	4	36	259	5	1	38	6,927	17.4
2	현대자동차	3,723	37	2	553	155	65	0	1	-	3	4,539	11.4
3	대우전자	630	68	383	2,329	18	10	2	2	-	134	3,576	9.0
4	대우자동차	1,780	10	-	370	100	58	1	1	1	2	2,323	5.9
5	엘지전자	458	25	158	1,280	0	18	2	23	-	62	2,026	5.1
6	기아자동차	1,108	7	0	224	85	24	0	0	-	2	1,450	3.6
7	엘지반도체	12	0	0	1,318	0	1	0	1	-	-	1,332	3.3
8	현대전자산업	16	2	0	1,077	1	4	0	0	-	-	1,100	2.8
9	대우통신	5	0	0	537	-	-	-	3	-	-	545	1.4
10	한국전기통신공사	3	3	0	508	1	1	-	-	-	-	516	1.3
	계	8,937	182	797	13,294	364	217	10	290	2	241	24,334	61.2
	점유율2)	72.6	9.7	65.2	73.4	19.0	25.7	1.1	67.4	0.4	15.1	61.2	

\* 점유율1):내국인 총등록건수 대비 다등록업체의 점유율

\* 점유율2):내국인 산업부문별 총등록건수 대비 국내 10대 다등록업체의 점유율



## 상표권 효력의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네임은 원천적으로 금지 -

최근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와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경제적 재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타인의 유명상표나 상호를 악의적으로 등록·사용함으로써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 상호와의 저촉 문제가 국내·외적인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다.

원래 상표제도는 산업발전과 수요자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가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데 반하여,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정보교환을 위한 수단으로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미국에서는 InterNIC사를 비롯한 여러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 한국에서는 한국전산원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부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유명상표권을 무단으로 선등록하거나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도메인 네임을 원상표권자나 경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량등록(이른바 "도메인 사재기(warehousing))하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분쟁은 인터넷이 초국가적이고 시공을 초월한 특성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명확한 분쟁처리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바,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와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을 통해 국제적인 규범 형성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99. 6월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에서 채택된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에서 "도메인 네임 또는 그 요부가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음역한 것으로 악의로 등록 또는 사용된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 도메인 네임은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명상표권자는 권한당국의 결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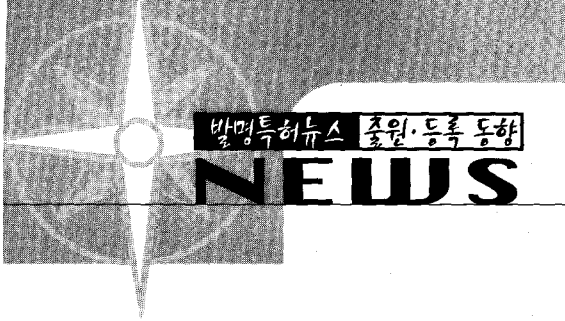
의해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자에게 그 등록의 취소 또는 당해 유명상표권자에게로의 도메인 네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명상표에 대한 반사이버스쿼팅 규정을 두고 있다.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이 이번 9월로 WIPO총회에서 파리동맹과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 형태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본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비록 조약의 형태가 아닌 권고안이지만 파리동맹과 WIPO 회원국의 상표법제상 반사이버스쿼팅 관련 규정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프랑스의 샤넬사의 상표를 국내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사용함으로써 상기 회사가 국내에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99. 2월 특허청,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업계,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도메인분쟁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각 기업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명칭을 먼저 등록(사이버스쿼팅)해 그 상표권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개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미국 상원이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금지하는 "반사이버스쿼팅" 법안을 가결, 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내외 반사이버스쿼팅 행위 규제 동향에 따른 상표권 효력의 사이버공간상의 확대 논의에 따라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인터넷상 정당한 상표사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 WTO에서의 논의사항을 상표관련 법제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의장이 최근 중소기업 시장경쟁력 확보전략으로 각광받아

최근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장경쟁력 확보에 성공하고 있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99년도 6월말 현재 전체 산업재산권은 638,341건이며, 이 중 의장이 118,905건으로 18.6%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별 중소기업 보유비율은 의장이 61.4%로 특허 14.3%, 실용신안 32.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기업이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비교적 개발비용이 적게드는 의장개발에 관심을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오늘날 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이 기술 못지않게 그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신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기능보다 오히려 이들의 구미에 맞도록 독특하게 디자인된 상품이 고객 흡인력이 높은 실정이고,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 자금, 조직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며, 상품의 판로면에서도 열세인 입장에 놓여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대기업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그 경영전략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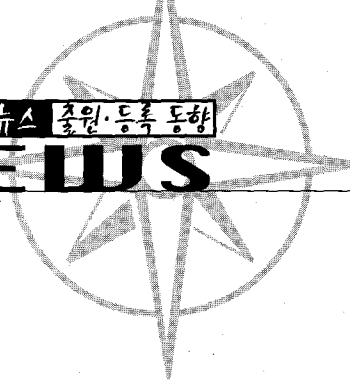
성과를 보고있는 중소기업의 예를 보면,

○ (주)YTC텔레콤의 경우 휴대전화기의 전체 사이즈를 축소하여 소형화를 추구하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신선한 감각과 첨단제품의 이미지를 가미한 "마이폰(My Phone)" 일명 사오정전화기를 개발하여 98년도에 7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한편 미국 등 14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 (주)현우맥플러스는 남미, 중동, 동남아 등 저가시장을 겨냥하여 심플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도록 디자인한 컬러 T.V를 97년에 신상품으로 개발하여 이미 8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99년도의 매출목표를 450억원으로 잡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자동차 등의 첨단복합기술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우수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도 고유한 분야에서 비록 단일품목이라 할지라도 고객에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 개발에 성공한다면 시장을 석권하여 작지만 강한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독자적인 우수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개발투자비와 인력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열세인 점을 감안할때 상품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전략차원

에서 의장분야에 관심을 갖고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디자인개발성공 중소기업 사례**

업체명	(주)YTC텔레콤
개발품목	마이폰(My Phone)
대표자	지영천
전화번호	02-3453-7723
매출실적	2.6억~70억(2,592% 신장)
'99년 매출목표	162억
주요수출국	미국 등 14개국
디자인 특성	젊은층을 대상으로한 신선한 감각과 전체 사이즈를 축소한 소형화를 추구, 첨단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함.

업체명	에이스전자
개발품목	무선진공 청소기
대표자	주영종
전화번호	02-830-7455
매출실적	신상품
'99년 매출목표	15억
주요수출국	일본, 중동, 유럽, 동남아 등
디자인 특성	핸디형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편리성을 추구하였으며 차별화된 디자인을 소비자에게 신선함으로 어필

업체명	(주)현우맥플러스
개발품목	컬러텔레비전(Color TV)
대표자	최형기
전화번호	02-894-0494
매출실적	80억(신상품)
'99년 매출목표	450억
주요수출국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디자인 특성	남미지역 수출용 모델로서 저가시장을 겨냥한 심플하고 차별화된 이미지와 T.V 후면부위를 고려하여 디자인함.

업체명	(주)에이컴
개발품목	초정밀 미량저울
대표자	백성훈
전화번호	0351-871-0193
매출실적	4.2억(신상품)
'99년 매출목표	12억
주요수출국	호주, 중동, 동남아시아, 동구권 등
디자인 특성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인식과 아울러 독특한 Identity를 추구하였으며 4각 및 원형 Tray 를 공유할 수 있는 스타일

업체명	이레전자산업(주)
개발품목	회의용 전화기(CONFERENCE PHONE)
대표자	정문식
전화번호	02-861-6804
매출실적	신상품(수출용)
'99년 매출목표	102억
주요수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7개국
디자인 특성	전체의 조형형태를 Aerodynamic Type의 3차원 라운드를 정리, 적용하였으며 스피커의 개구율도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최소화함.

업체명	옵니시스시스템(주)
개발품목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
대표자	강재석
전화번호	02-203-0209
매출실적	5.5억(신상품)
'99년 매출목표	35억
주요수출국	동남아, 중동 등
디자인 특성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더욱 정밀하고 자동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원격검침용 전력량계로서 모던하고 심플함.



## 중소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특허수수료 대폭 감면

-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있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특허수수료를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 특히 21세기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청이 주요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존의 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중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새로이 추가할 예정이다.
- 감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경우(상표제외)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1~3년차분)에 대해 개인, 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중기업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개발된 기술이 특허로 권리화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감면기관은 1999. 9. 1일부터 2001.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나, 세입추이를 보아 감면기간의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 새로운 수수료감면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현재 국내기업중 2.6%에 불과한 특허권 보유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50여개), 각종대학('98년 기준 300여개)등에 대한 감면을 통해 연구개발기

술의 권리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원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 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고 다음중의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개인의 경우 아무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학교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허(전자출원, 심사청구료 1항, 등록료 3항 기준)  
(단위:원)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개인, 소기업	출원료	14,500	8,700	50%~70% 감면확대
	심사청구료	70,500	42,300	
	1~3년차 등록료	63,000	37,800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출원료	29,000	14,500	무감면→50% 신규감면
	심사청구료	141,000	70,500	
	1~3년차 등록료	126,000	63,000	

○ 실용신안(전자출원, 심사청구료 1항, 등록료 3항 기준)  
(단위: 원)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개인, 소기업	출원료	10,000	6,000	
	심사청구료	27,500	16,500	50%→70% 감면확대
	1~3년차 등록료	37,500	22,500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출원료	20,000	10,000	
심사청구료	55,000	27,500		
1~3년차 등록료	75,000	37,500		

○ 의장(전자출원 기준)  
(단위: 원)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개인, 소기업	출원료	33,000	26,500	50%→70% 감면확대
	1~3년차 등록료	37,500	22,500	
	중소기업,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출원료	66,000	
1~3년차 등록료	75,000	37,500		
75,000	37,500			

## 「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 발간

- 누구나 쉽게 특허출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을 발간함.

- 이는 구체적으로 '출원서류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 '출원서류 작성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발명의 권리화를 촉진하는 한편 일반인의 특허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청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출원서류를 꾸밀 수 있도록 출원서류 작성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총 137쪽)을 발간함.
- 이 책자는 발명의 권리화를 유도하고 출원인의 출원서류 기재오류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반인의 특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요령」을 배포하였으나 그 설명이 충분치 못하여 출원서류 작성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출원서류를 처음 꾸

미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이번에 발간된 「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의 내용은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을 다룬 제1부와, 출원서류 작성사례를 실은 제2부로 나뉘어져 있음.
- 제1부에는 특허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재요령 및 심사관들의 심사참고자료인 심사지침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적 매체에 의한 출원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져 있음.
- 또한 제2부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7건(특허 7건, 실용신안 2건)의 출원서류 작성사례가 실려 있음.
- 특허청은 이번에 발간된 「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을 특허청 민원실 및 서울사무소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그 내용을 특허청 인터넷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발특9909